

일반 연제(III) - 17

최근 2년간 Ciprofloxacin에 대한 Methicillin-resistant *Staphylococcus aureus* (MRSA)의 신속한 내성획득에 관한 고찰

고려의대 내과 최철원, 정희진, 신상원, 김우주, 박승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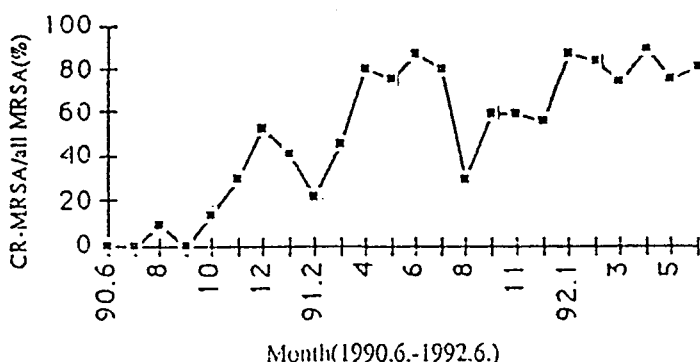
MRSA는 종합병원에서 원내감염증의 중요한 원인균으로 대두되고 있으며, cephalosporin 및 aminoglycoside 항생제등에 다제 내성을 나타내어 치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. New quinolone 항생제들은 MRSA에 대하여도 유효한 약제로 사용되어 왔으나, Blumberg등은 미국에서 ciprofloxacin을 사용한지 1년후에 ciprofloxacin-resistant *S. aureus*(CR-MRSA)의 빈도가 0%에서 79%로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. 이에 연구자들은 고대구로병원에서 ciprofloxacin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된 1990년 6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환자로부터 분리된 황색 포도상구균 1495균주를 대상으로 Kirby-Bauer disk diffusion법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, 국내 종합병원에서 MRSA의 ciprofloxacin에 대한 내성획득의 빈도 및 추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.

1) 총 1495균주중 MRSA는 894균주(59.8%), MSSA(Methicillin-susceptible *S. aureus*)는 601균주(40.2%)이었다. 입원환자에서 분리된 총 1192균주중 MRSA는 787균주(66%), MSSA는 405균주(34%)이었으며, 반면에 외래환자로부터 분리된 303균주중 MRSA는 107균주(35.3%), MSSA는 196균주(64.7%)이었다.

2) Ciprofloxacin resistance는 MRSA 894균주중 527균주(59%), MSSA는 196균주중 9균주(1.5%)로서 MRSA에서 현저히 빈도가 높았다.

3) 매월 분리된 MRSA균주중 CR-MRSA의 빈도는 1990년 6월 0%, 12월 52.9%, 1991년 6월 86.5%, 12월 55.6%, 1992년 6월 81.6%로 1년만에 현저히 증가되었다.

Prevalence of CR-MRSA by month



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, 국내에서도 MRSA에 대한 ciprofloxacin 내성이 항생제 사용에 따라 신속히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. 향후 New quinolone 항생제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하며, 내성획득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.